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편집후기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달게 된 이 문집의 발간에는 오랜 시간에 걸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2004년 10월 초 박석운의 발의로 긴급조치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준비모임을 갖는 가운데 기념문집의 발간이 중요한 의제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념문집 출간의 당위성이 확인되었고 30주년행사추진위원회 산하에 문집발간 소위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2차 모임에서 30주년행사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위원장에 박석운, 사무국장에 박종혁, 각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장에 양춘승(행사추진), 김선택(재무), 한상석(대외협력)이 선정되었습니다. 문집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는 김경택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해량, 신동호가 협력하면서 대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11월 1차 모임에서 법원의 판결문과 뉴스메이커의 신동호 편집위원이 집필한 기획시리즈 '긴조 9호세대 대담합' 외에는 긴급조치 철폐투쟁에 대한 그 어떤 공개적·공식적 기록도 없는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고, 긴조세대 자신이 그 행적을 복원함으로써 '기록말살의 시대' 였던 긴급조치9호시대의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는 편집 원칙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출신 대학을 망라하여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투쟁에 관한 기록을 집필토록 하며, 그 첫 번째 모음집을 2005년 5월 13일 30주년기념행사에 맞추어 출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후 소준섭이 편집위원회의 멤버로 가세하였고, 2005년 들어 임미리가 실무책임자로 일하게 되면서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문집 발간의 실무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각 출신 대학별로 해당자에게 원고청탁서를 발송하고 출신 대학별 담당자가 선정되어 원고 집필의 독려에 들어갔고, 4월 들어 행사추진위원회에 박석운 외에 김선택, 선정식, 설훈, 신일섭, 안남영, 이대수, 이향순, 조태원, 최정순이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문집 발간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4월 30일까지 총 70편의 원고가 모아졌으며, 강성구(연세대), 김지현(이화여대), 백찬홍(한국외대), 석원정(숙명여대), 송세인(동국대), 안길정(전남대), 오세계(서강대), 이상경(부산대), 정상시(한신대), 이창훈(경희대), 최욱(성균관대), 고영목·부윤경·이원주·정병문·최영선(서울대)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행사 준비와 원고 수집을 도왔습니다. 또 신동호 편집위원의 노고에 힘입어 당시 긴조세대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던 선언문 38편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임미리와 신동호의 노력으로 긴급조치9호시대의 학생운동 일지가 작성됨으로써 그 시기 긴조세대의 투쟁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 또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이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에서 정확하고 누락 없는 일지를 만드는 일은 결코 손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문집 발간 소위에서 1차로 일지를 만들어 각 대학별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아직도 누락된 사건이나 사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은 추후 지속적인 추가작업을 통해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 당시의 선언문은 역사복원의 차원에서도 귀중한 사료가 되는 것으로, 앞으로도 우리들의 손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책의 출판 과정에서 이상경이 노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 책의 제작에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주신 사계절출판사 강담실 사장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편집위원회